



2025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본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제2학기 서울대총동창회·재단법인 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종섭(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관악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총 4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해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장학금은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무한한 신뢰와 격려의 메시지이다. 서울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격려사에서 "도전과 혁신을 향한 불씨 미래세대의 성장과 희망을 위한 큰 뜻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서울대학교가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문분

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동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 권영걸 회장을 대신해 민수정 사무국장이 심연우(23공예, 공예과 학생회장), 안수빈(23디자인, 디자인과 학생회장), 주민규(20조소, 조소과 학생회장) 학생 등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본회는 성적 또는 소득을 고려해 지급해오던 장학금을 2023년부터는 바쁜 수업 일정 속에서도 봉사하는 학생회 임원들에게 수여함으로써, 모교 학생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학금을 수상한 안수빈 학생은 "좋은 기회로 장학금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학우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맡은 역할에 진중히 임하겠다. 또한 먼 훗날 받은 마음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민규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린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다짐했다. 심연우 학생은 "먼저 저에게 뜻깊은 장학금을 수여해 주신 학교와 미술대학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의 길에 대한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금속공예를 전공하며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탐구하는 작업 과정은 언제나 시행착오와 도전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이러한 과정에서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학업과 작업에 더욱 정진하여, 전공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작

본회 S-미술아카데미는 지난 9월 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15주에 걸쳐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를 진행한다. 미술실기강좌는 본회 산하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종로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을학기는 ▲프리페인팅-유화.아크릴화(강사 조명식), ▲기초소묘드로잉-인체를 이용한 기초드로잉(강사 김호준), ▲태블릿PC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작품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사군자-여백과목향의힐링(강사 변영혜) ▲수채화-초.중.고급(강사 박혜령) ▲현대수묵화-풍경.인물.정물.문인화창작(강사 조래원) ▲유화-초.중급(강사 안성규) ▲사진완성 클래스-이론&실전 마스터(강사 이필두) ▲자유크로키-누드(강사없음) ▲프레스코 원데이클래스-석회벽화.템페라(강사 선우항) 등 모두 10개 강좌로 구성됐다. 모든 강좌는 실기와 이론수업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실전경험과 교육경력을 쌓아온 모교 출신 강사들이 수강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개별지도 한다. 강사진 및 강좌안내 등 아카데미에 관한 정보는 본회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2025가을 마이컬렉션 개최

본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갤러리에 서 '2025가을 마이컬렉션'을 개최한다. 지난 2023년 성공적인 첫 전시에 힘입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마이컬렉션은 서울대 동문 소장품전으로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며 서울대총동창회가 후원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 동문들이 소장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임과 동시에, 소장품의 순환을 위해 적은 투자로도 컬렉션이 가능하게 기획됐다.

회장동정



세종연구원 초대원장 취임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이 9월 15일 취임식을 갖고 세종특별자치 세종연구원(세종인재평생교육·도시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권회장은 앞으로 2028년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권회장은 지난 8월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2025 서울대홈커밍데이 오픈아트페어 개최



본회는 오는 10월 1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개최하는 '2025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동문나눔 한마당'에 오픈아트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오픈아트페어는 관악캠퍼스 버들골 풍산마당에 마련된 부스에서 진행되며, 참가 동문들은 자신이 준비한 작품을 전시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지난해 '가을이 예술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오픈아트페어는 김소선(63회화) 동문을 비롯해 8명의 동문 작가가 참여했으며, 방문한 동문들과 가족, 재학생들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예술과 교류하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문화적 풍요로움을 만끽했다. 2025년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가 종합화를 이룬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홈커밍데이는 반세기 모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기념비적인 행사가 될 전망이다. 총동창회는 "동문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이 더해져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2024 오픈아트페어)



S-미술아카데미
가을학기 수강생모집

2025 가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원데이
오전 10 - 13시	기초소묘드로잉 인체를 이용한 기초 드로잉 김호준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창작 조래원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오후 14 - 17시	자유 크로키 누드 강사 없음	사진 완성 클래스 이론&실전 마스터 이필두	사군자 여백과 목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프레스코 Fresco·Secco (석회벽화·템페라) 선우항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접수기간

강좌별 수시모집

접수방법

문자접수(010-8605-8065) 및 수강료 입금
계좌: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기간

9.8(월)~12.15(월) 15주 / 공휴일 휴강(보강 진행)
오전강좌: 10~13시 / 오후강좌: 14~17시

강의장소

S-미술아카데미 실기실(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2층)

수강정원

강좌별 15명(복수신청 가능)

수강료

강좌별 45만원(15주 기준)
*자유크로키 24만원(12주 기준) 모델료 별도
*환불규정 홈페이지 참조

강사진 및 아카데미 안내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문의

02-877-8065(평일 10시~17시)

모교소식



후기 학위수여식

모교(학장 정의철)는 지난 8월 2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체육관(71동)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제79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30명, 석사 18명, 박사 4명 등 총 5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과 및 전공별 학위 수여 인원은 △동양학과 : 학사 5명, 석사 3명, 박사 1명 △서양학과 : 학사 5명, 석사 1명, △조소과 : 학사 7명, 석사 1명 △공예과 : 학사 2명, 석사 3명, 박사 1명 △디자인과 : 학사 11명, 석사 8명, 박사 1명 △협동과정 미술경영 : 석사 2명, 박사 1명이다.

조소과 해외작가 초청 특강



모교 조소과는 지난 8월 29일 한국계 콜롬비아 출신 현대미술 작가 갈라 포라스-김(Gala Porras-Kim)을 초청해 해외작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74동 201호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수진은 물론 외부 관객에게도 개방됐다. 갈라 포라스-김은 언어, 소리, 역사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가 사회와 제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보존되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으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그의 작품은 휘트니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 리버풀 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전시회 초청되며 동시대 미술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모교는 이번 특강을 통해 현대미술과 제도 비평, 보존, 역사적 맥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전 접수 없이 당일 선착순 무료 입장이 가능해, 예술적 영감을 얻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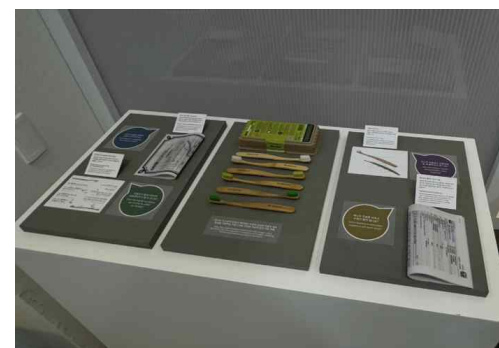


공예과 허보윤 교수 기획전시

모교 공예과 허보윤 교수와 도자공예 전공 학생들이 참여한 '2025 백자의 여

름' 기획 전시회가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양구백자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양구백자연구소 연구원과 모교 교수 및 학생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자기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며 양구백자연구소가 추구하는 도자 문화의 깊이와 수준을 보여준다. 아울러 청화 장식 기법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여름 특강 '백자의 청화 장식', 양구백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워크숍 '백자 대호 물레차기' 등의 부대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한다. 29일 오후 2시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서흥원 양구군 군수, 허보윤 교수와 양구백자연구소 연구원, 참여 교수·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해 작가소개, 전시설명, 자유관람 등을 진행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27일 "백자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탐구하는 이번 전시는 전통 도자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리이다"며 "VR 전시 등 디지털 방식을 접목해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만큼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양구백자박물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함께 양구백자연구소를 설립하여 양구 백자와 백토에 대한 연구·활용을 지속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디자인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모교 정의철 학장과 권정륜(박23 디자인), 박솔몬(박24 디자인), 안성현(박21 디자인), 이은섭(BK교원), 지은실(박25 디자인) 등 총 6인이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의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개국 14개 디자인 대학의 학생 40여 명이 참가하는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진행됐다. 8월 30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65일간 개최되는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높고 낮음이 없는 무등의 땅 광주를 무대로 19개국 429명의 작가가 참여해 163점의 '포용디자인'을 선보인다.

미대극회 정기공연 텀블벅 후원시작



모교 공식 동아리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미대극회)'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문소극장에서 상연될 118회 정기공연 '리틀 맬컴'의 온라인 후원 프로젝트(텀블벅)를 시작했다. 미대극회는 2015년부터 펀딩 커뮤니티 텀블벅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의 후원을 받아 왔으며, 후원시 모교 디자인과 재학생이 디자인한 금액대별 상품이 배송되고, 리플렛에 후원자명 기록, 좌석 우선선택 및 상품 현장구매시 할인 등의 혜택 또한 제공된다. 텀블벅 후원은 오는 10월 8일 마감된다. 이번 정기공연 작품은 데이비드 홀

리월의 희곡 '리틀 맬컴'으로 김나연(23동양) 학생이 연출과 윤색을 맡았다. 본 공연은 미술대생 맬컴 스크러다이크가 졸업 직전 퇴학 위기에 처하며 그의 친구들과 제도에 대항하는 여러 작전을 계획하는 이야기다. 김나연 연출은 "우리 공연에는 수많은 가짜, 진짜 없는 가짜들이 등장한다. 허나 어떤 매혹적인 가짜도 진짜가 될 수 없고, 마땅히 그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괴로운 마음으로 제 최선의 가짜를 바친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하며, "많은 재학생들이 방학을 바쳐 아심차게 준비한 공연에 많은 기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텀블벅 링크: <https://tumblrbug.com/aerg118>)

서울대소식



서울대-세종시 상생발전 업무협약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60동에서 '서울대학교-세종특별자치시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연구·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세종시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부문 및 인공지능·첨단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국가적 메가 싱크탱크 구축 등 4개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홍림 총장은 "서울대와 세종시가 함께 국가 정책과 미래 학문을 융합하는 교육·연구 허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서울대도 미래 비전과 창조적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79회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8월 28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79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1,015명, 석사 1,304명, 박사 700명 등 총 3,019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장은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여러분이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증거"라며 "멈추지 말고 용기를 발휘해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고유한 탁월함을 지닌 동료들과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자신과 공동체의 힘을 믿고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학위수여식 축사는 음악대학 국악과 안나 예이츠 교수가 맡았다. 인류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한국의 K-Pop과 K-Culture를 접하며 판소리에 매료된 그는 인류음악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20년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졸업생 대표 연설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김주안 학생이 맡았다. 김주안 학생은 학부생연구지원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 학문후속세대 연구세미나 참여 등 기초학문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국제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왔다. 그는 동료 졸업생들을 대표해 학문적 열정과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가족과 동문,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졸업생들은 설렘과 기대 속에 교정을 떠나며,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다졌다.



태권도부 프랑스와 교류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태권도부와 프랑스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 수련생 50여 명이 지난 8월 7일 체육문화연구동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태권도 교류 행사를 함께했다. 프랑스 태권도 수련생을 인솔하여 모교를 방문한 이문호 사범은 1970년대 서울대 태권도부 사범으로 활동한 인물로, 지금까지도 매년 동문들과 교류를 이어오며 깊은 인연을 간직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울대 태권도부의 초청으로 다시 모교를 찾았다. 그는 "서울대는 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서울대를 찾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세진(00정치) 태권도부 총동문회 사무처장은 "태권도부는 70년 전통을 지닌 운동부"라며 "프랑스 팀과의 교류는 태권도 본산인 서울대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태권도부 주장 배진혁(24작곡) 학생은 "선배님들 덕분에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다"며 "태권도라는 공통언어로 마음이 연결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서울대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이르면 9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호봉제는 폐지된다. 모교는 최근 성과연봉제 운영 지침 초안을 마련해 정년 보장 교수 약 1400명에게 공유했으며, 평의회와 이사회, 관련 위원회 심의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연구와 강의 실적을 기준으로 교수들을 네 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5%에 해당하는 교수에게는 기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하위 등급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봉 인상안으로는 정년 보장 교수 기준 300만원 상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연봉 산정에는 '전년도 성과급 누적 반영'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현재 준비 중이며, 등급 기준과 시행 여부는 평의회, 이사회 등 학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AA 2025 시상

지난 14일 서울대학교 오디토리움에서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현대건설 공공미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2회를 맞은 SHAA(SNU ICA Hyundai E&C Art Awards 2025)는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과 현대건설이 공동 주최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주거 공간에 예술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서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회화, 조각, 공예,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공모해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최종 선정된 작가와 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이종식 문화예술원장과 박제성 미술대학 부학장, 현대건설 최광호 건축주택설계실장과 박귀성 익스테리어 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동창회소식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에 9천만원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서교) 네팔과 제주 공헌단에 총 9000만원을 후원하며 동문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현했다.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25년 여름방학 동안 제주를 비롯해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페루 등 4개국에 공헌단을 파견해 교육, 보건,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13년 2월 창설 이래 대학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허브조직으로서 대학의 사회 책무와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과 동문 100여 명이 참여한 동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학생과 졸업생이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동문의 전문성과 사회공헌의 긍정적 영향력을 서울대학교와 사회로 확장하고 선순환하는 공헌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공헌위원회 과천시 청소년 초청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7월 29일 과천시 청소년 30명이 서울대학교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과천시청소년재단(진로체험지원센터)이 함께 주관한 '2025년 청소년 기업대학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참가자들은 대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는 중학생 25명과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에는 학교 밖 청소년 5명과 취약계층 위기청소년 2명이 포함됐다. 정문에서 기념촬영으로 일정을 시작한 뒤, 미술관과 규장각, 아크로폴리스, 중앙도서관, 지하연을 차례로 둘러보며 캠퍼스를 체험했다. 이후 75동 김상진홀에서 재학생 멘토들과 함께 학교 소개 및 Q&A 세션이 이어졌다. 사회공헌위원회는 건학 일정과 식사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서울대 심볼이 새겨진 학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조기호·이영자 동문부부 5억 기부

조기호(54화학교육) 동문이 지난 7월 총동창회에 5억원을 기부했다. 지금까지 총 15억 700만원을 기부한 조동문은 배우자 이영자(56생물교육) 동문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후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부는 "교육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돌려주고 싶다"는 조동문의 지속적인 뜻이 이어진 결과로, 기금은 장학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 7월 한 달간 총 기부금은 7억 9499만 4000원으로, 총 40여 명의 동문과 단체가 참여해 기부 문화를 이어갔다. 관악회는 매월 정기 기부와 약정 기부를 통해 장학금과 교육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2025년 누적 기부금은 26억 515만 원이다.



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포럼

(사)관악경제인회(회장 서병륜)가 주최한 '2025년 하반기 스타트업 포럼'이 지난 7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서병륜(69농공) 회장, 조완규(48생물)·오세정(71물리) 전 서울대 총장, 이희범(67전자) 부영그룹 회장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미래 전략을 함께 들었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 △바이오 플랫폼 기업 '클리캠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스모스' 등 3개 스타트업 기업이 발표자로서 핵심기술과 시장전략을 소개하며 동문 경제인들과 교류의 장을 열었다.

9월 국토문화기행

- 일시 : 9월 25일(목) 오전 9시(정시출발)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 답사지 : 윤증고택(논산)
- 참가비 : 5만원
- 참가신청[행사명,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 문자/1599-7704 팩스/02-703-0755 이메일/jang9869@hanmail.net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37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 홍길동9월국토)
 - 9월 17일(수) 이후 신청취소 시 참가비 환불 불가
- 문의 : 02-879-8204

홈커밍데이 동문나눔 한마당

- 일시 : 10월 19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버들골·풍산마당
*우천 시 실내(종합체육관)행사로 대체
- 행사내용 :
 - 캠퍼스 자율탐방(11:00~13:00, 캠퍼스 일대)
코스, 기관별 도슨트 등 자세한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11:00~13:00, 풍산마당) 본인확인 및 행운권 접수
무더위 안전상 이유로 도시락 대신 간단한 간식 및 생수 제공
 - 식전행사(11:00~13:00, 버들골)
재학생 동아리 활동 참관, 미니게임 참여, 사회공헌 기금 모금
다양한 푸드트럭 운영(10:00~17:00)
 - 공식행사(13:00~16:30, 풍산마당)
개회식,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행운권 추첨 등
경품 수령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입학·졸업 10·20·30·40·50·60년을 맞이하시는 동문 대상 이벤트 예정
- 참가신청:
 - 10월 10일(금)까지 문자(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a.or.kr) 제출
제목 : 홈커밍데이 참가 신청
 - 성명 :
 - 학과 / 입학연도(특별과정은 과정명 및 기수 기재)
 - 인원수(본인포함) : ○명
 - 휴대전화번호 :
- 홈커밍데이 행사 협찬 안내: 협 찬 금 : 100,000원 이상
 - 계 좌 : 우리은행 1005-401-137376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입금 시 이름, 학과, 입학연도 표기(특별과정은 이름, 과정명, 기수 표기)
- 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회비납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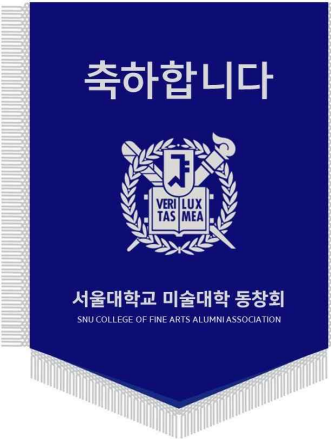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2025.7.16 이후)은 다음 호(10월)에 게재합니다.

- 부회장회비 강인선(73회화)
- 평 생 회비 문혜정(74회화)
- 일 반 회비 곽준희(94공예) 김춘이(59응미)
- 광고후원금 송인옥(82회화) 20만원 전성규(81회화) 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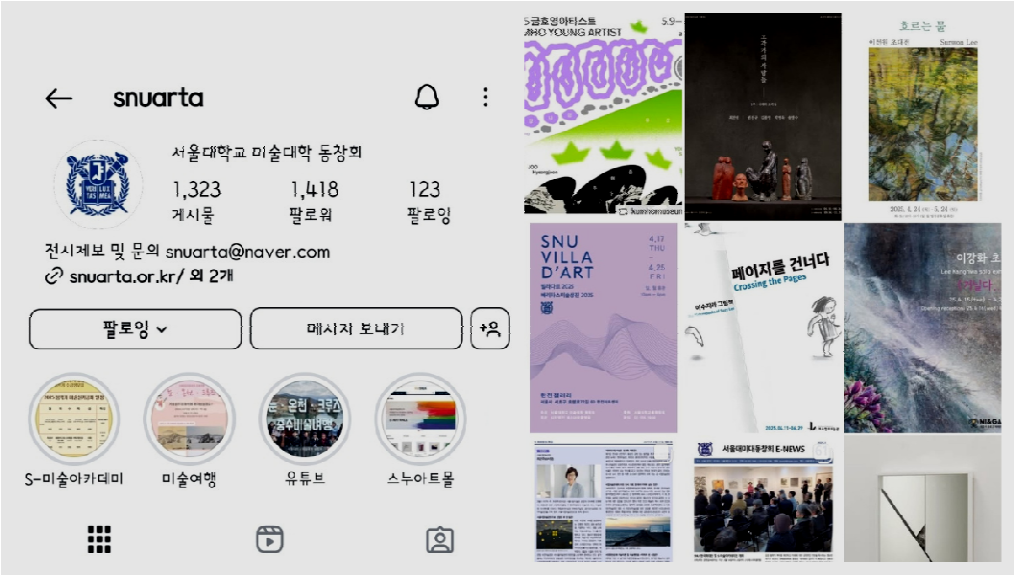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 시 축하
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
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
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
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
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
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
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
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1) 문자(010-8605-8065)신청[마컬/성명/입학연도/대학(원)/학과/이메일 기입]
- 2) 출품료: 5만원(3점까지)/ 추가 1점당 2만원(홍보·전시비용/신청시 납부)
※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자료제출 : 신청자에게 추후통보
- 3. 출품요강
 - 출품작품 : 판매가능한 회화·조각·공예(작가가 명확한 1900년이후 작품)
 - 작 품 수 : 1인 최대 10점 이내
 - 작품규격 : 평면-90×90cm 이내(액자포함), 입체-50×50×50cm이내
- 4. 작품반입 및 반출
 - 작품반입: 10월10일(금) 오전10시-오후2시
 - 작품반출: 10월18일(토) 오후3시-오후5시30분
 - 장소: 한전갤러리 1층 2전시실 (서초구 효령로 72길 60 한전아트센터)※ 반입 및 반출은 위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입체 작품의 경우 전시에 필요한 작품대는 사전신청바랍니다.
※ 작품설치는 서울대미대동창회에서 진행합니다.
- 5. 작품판매
작품판매시에는 작품구입비(출품가의 60%)를 지급합니다.
※ 카드결제 또는 계산서 발급시 원천징수 3.3% 공제
■ 문의 : 02-555-1946(평일 10-17시)

2025가을 마이컬렉션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는 서울대학교동문 소장품전 '마이컬렉션'을 다음
과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동문들이 소장한 작품 중 관리나
보관이 어려운 작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새 보금자리를 찾아주고자 하오니
출품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및 출품안내

- 1. 전시개요
 - 전시명칭 : 2025가을 마이컬렉션
 - 전시기간 : 2025년 10월11일(토)-10월18일(토) ※일요일, 월요일 휴관
 - 전시장소 : 한전갤러리(서울 서초구 효령로72길 60 한전아트센터)
 - 주최 :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 주관 :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
 - 후원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2. 신청요강
 - 신청대상 : 서울대학교 동문 및 가족
 - 신청기한 : 9월21일(일)까지 ※전시장 여건상 선착순 마감 예정
 - 신청방법 :

동문탐방

이봉열(57회화) 제70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제 70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미술 부문) 이봉열동문을 만났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게 되었나

1937년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에서 2남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연안중학교 재학시절에 6.25전쟁이 일어나자 1951년 고향을 떠나 월남했다. 1954년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제2회)에 입학했고,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했다. 어릴 때 꿈이 화가인 형이 있어서 그림을 잘 그렸다. 늘 그림을 그리는 형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어린 시절부터 삶의 일부였다.

기억에 남는 전시는

1975년 라쿠르 땡그르(La cour d'Ingres)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이 기억에 남는다. 1973년 파리에 가서 2년 반 동안 파리에 있었다. 파리에 가기 전에 미국 뉴욕에서 3개월 있었다. 서울 명동 뒷골목에서 구한 철 지난 일본 잡지 '미술수첩'이나 미국 타임지에 있는 '아트'란을 통해 서구 현대미술에 대한 단편적 정보들을 얻던 청년 작가 앞에 현대미술의 현장이 그곳에 있었다. 그때 받은 자극 때문에 6개월 동안은 갤러리들을 돌아다니느라 붓을 잡지 못했다. 빈 캔버스를 바라보며 '어떻게 화면을 다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던 나에게 떠오른 것이 황해도 연백 옛집의 창호였다. 빛이 들면서 창살 그림자가 한지 위에 어른거리던 모습, 그 빛의 흐름은 기하학적 분할을 기반으로 하는 격자구조 작업인 '공간' 시리즈로 이어졌다. 캔버스에 마스킹테이프를 붙였다 떼면서 격자무늬를 만들고 황색 계열 물감을 뚝뚝 마음 가는 대로 떨어뜨린 작품들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작품세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작품도 점점 미니멀추상으로 변모해갔다.



공간 - 7430, 1974년

이봉열의 작품세계는

1970년대 평면에서 표면과 공간 분절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격자구조'의 미니멀 추상을 선보였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화면 공간을 점차 해체 시켜 나갔다.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조형언어들보다 지워진 흔적들이 더 많은 함의를 낳게 하는 작품은 선승의 미소처럼 푸근하게 다가오면서 절제되고 함축된 화면으로 전개되었다. 이 점진적인 소멸이 감정선을 지우고, 표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 흘러가도록 스스로 방임하는 것이었노라 말한다. 그림에는 얹혀진 느낌들의 층이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조금씩 엇갈리는 민감한 선들이 오버랩되고, 무채색의 섬세함과 모노크롬의 후광으로 빛어진다. 내가 추구하는 공간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화면에 스며드는 공간이고, 메아리나 울림이 들려오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기하학적 구성을 버리고 선의 탐미마저 내려놓은 이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살아 있다는 것, 살아서 회화를 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한 자유와 무관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주의력.. 그의 캔버스는 이제 이어질 듯 끊어지고 나타날 듯 소멸되는 것들, 선인 듯 선이 아닌 듯 한 터치와 제스처의 중간 미와 실존의 모호한 경계자체가 된다' (심상용/서울대미술관장)

'2000년 그의 작품은 몸 전체의 질량이 살아 숨 쉬는 피질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지적 구성물 혹은 개념적인 사물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작가와 작품이 하나로 연결된 인간적 사물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인가 토로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언어의 여운이 침묵의 배면에서 숨 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전시켜야 마땅한 메시지를 부재의 상태로 묻어둔 익명의 공간이자 하나의 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복영/미술평론가)



공간 - 8520, 1985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림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작업의 태도가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림에 변화도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업실 전경

이동문은 팔십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노(老) 화백은 "팔자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딱히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절실함도 없었고 그렇다고 풍류객으로 살아 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흘러왔을 뿐"이라고 했다.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이봉열 동문은 파리 La cour d'Ingres와 현대화랑, Atelier705, 신세계화랑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북해도미술관, 중국미술관, 까뮤국제회화제 Cagnes sur mer, Salon de Mai, 인도트리엔날레, 브루클린미술관, 동경미술관외 일본5대미술관순회전, 워커힐 미술관, 호암갤러리, 선재현대미술관 등에서 단체전을 연 바 있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1971년 제2회 한국미술대상전 우수상, 1972년 제21회 국전 추천작가상등을 수상했다.

'나는 옷칠로 위로 받았다' 출간 나성숙(71응미)



나성숙 동문이 책 '나는 옷칠로 위로 받았다'를 오는 10월 1일 출간한다. 출간에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교보문고에서 북펀딩이 진행된다.

나동문은 21년 전 개인적인 큰 슬픔을 겪은 후 전통미술과 옷칠 연구, 보급에 20년을 보냈다. 책은 시각디자인이인 나동문이 옷칠을 만나면서 새로이 깨닫고 치유받은 이야기를 전한다. 북촌 한옥 '서로재'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과의 인연, 전통 옷칠에서 현대적 조형미로의 변화와 발전, 예술혼과 삶의 고통이 만나 정화되는 과정을 옷칠을 바르는 것처럼, 사포를 치는 것처럼, 자개 등을 깎아내는 것처럼, 금칠을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켜켜이 쌓았다. 나동문의 바람대로, 과도한 편집을 거치지 않은 그의 육필 원고 그대로,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살아있는 문장이 책에 담겨있다. 옷칠을 하게 된 동기, 배움터, 발전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하며 슬픔의 심연에서 옷칠과 함께 한 운명, 치유, 깨달음 등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으며 특히 오늘날 손으로 하는 작업이 갖는 치유, 명상 그리고 자기 성찰이 담겨 있다. 리워드로 옷칠 책갈피와 도태칠기 컵이 제공된다. 오는 10월 1일에는 나동문의 개인전 '서로재 이야기'가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는 10월 1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나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및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GSD에서 연수했다. 한국여성디자인협회장, 국제아트앤디자인협회 설립자, 미술과 비평 운영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 C.I. 서울시 경관계획 등에 참여했다. 한국 전통에 매료되어, 북촌 한옥 봉산재와 서로재를 터전으로 삼아, 전통 미술과 문화의 연구와 보급에 20여 년을 바쳤다. 2007년 문을 연 '나성숙옷칠학교'는 옷칠의 새로운 조형적 아름다움을 발굴하고 수많은 옷칠 작가를 키워내고 있다. 예술의 전당과 선화랑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쌍용건설, 차병원, 태양금속, 현대자동차, 세종호텔, 디자인하우스, 까사미아, 동국제약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명예교수이자 북촌아트센터 이사장이며, 제자들과 함께 '나성숙 옷칠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옷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나는 옷칠화를 그리면서 후회한 적이 없다. 어떤 재료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검은 칠의 매력, 정제칠의 품위 있는 색감, 세월 지날수록 피어나는 색옷칠, 삼베가 갖는 중후함, 흙이 토해내는 질박함 등 그 장점은 무수히 많다.

제작 기법은 전통 기법을 따르는데 전통대로 제작하다가 눈길이 멈추는 중간 단계가 있다. 멈추고 찬찬히 음미한다. 그리고 내 작품에 응용한다.'

-본문 중에서-

나성숙 지음

LOOK BACK BOOK

나
는
옷
칠
로
위
로
받
았
다

나성숙
지음

십연에서 만난 검은 위로, 옷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손길을 거친 나성숙의 옷칠은
금칠에 이르러 절정이 된다.
은은하지만 저력있는 빛을 발하는, 나성숙처럼.

서울미대 졸업, 하버드 연수, 주요 언론사 입사,
국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유명 언론인의 아내, 총명한 두 딸의 엄마...
'나성숙의 인생, 꽤 빛나네!'라고 생각한 즈음,
가장 빛나는 존재를 잃었다. 사랑하는 남편, 그것도 자신의 선택으로.
그 어둠에서, 검은 광채-옷칠을 만났다.

그로부터 20년. 옷칠은 곁을 지키는 위로가 됐다.
그리고 2년 전,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을 때,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로 다짐했다.

오늘도 북촌 골목의 낡은 한옥 '서로재'에는 사포 치는 소리가 가득하다.
20년 동안 제자 30기를 배출한 '나성숙옷칠학교'로 청한다.

33,000원 979-11-994678-0-4 03630

후원광고

희곡집 ZERO 영국출간 주수자(72조소)

주수자 동문의 희곡집 'ZERO'가 영국에서 정식 출간됐다. 이번 'ZERO'에는 원작 희곡집 '공공공공'에 실렸던 네 편의 작품이 모두 수록됐다. 네 작품은 각각 다른 형식을 취하면서도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중심에 두고,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긴밀히 연결된다. 페이지애디 프레스 측은 "네 편의 희곡은 서로 다른 색채를 지녔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존재 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고 평했다. 희곡집 출간과 더불어 원작 무대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연극 '공공공공'은



서울예술대학교 장두이 교수를 비롯한 배우들이 출연해 상연될 예정이며, 실험적 텍스트가 어떻게 무대 언어로 구현될지 관심을 받고있다. 모교 졸업후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 생활하던 주동문은 2001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버펄로 폭설', 시집 '나비의 등에 업혀'를 비롯해 희곡 '빛소리 몽환도', '복제인간 1001' 등을 연극 무대에 올렸으며, '빛소리 몽환도'는 영국과 몽골에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냅시모어대 교수 및 해외부총장 임명 변영혜(78회화)

변영혜 동문이 최근 미국 LA Knapp Seymour University로부터 신학대학 교수 및 해외 총괄 부총장 임명장을 받았다. 지난해 극동갤러리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을 통해 Knapp Seymour 관계자가 변동문을 스카우트하게 되었다.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변동문은 미국 FIT에서 수학하며 보석디자이너로 일하다 신앙적 체험을 계기로 귀국해 36년간 성경을 주제로 성화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총 25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21년 두란노서원에서 작품 12점이 수록된 '구약1'이 출간됐다. 변동문은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였고, 2022년에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특임교수로 임명됐으며 협성대 겸임교수와 순복음대학원대 평생교육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극동방송 운영위원, S-미술아카데미 사군자 강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울회 회원,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원,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한국화분과위원장, 광림미술인선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대한신학대학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 한근석(81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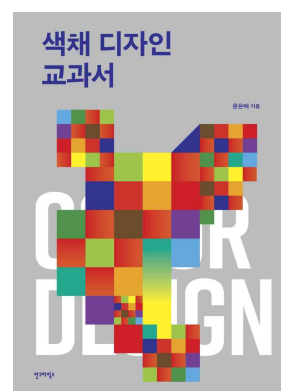
한근석 동문이 대표로 활동하는 서울시전문예술단체 광화문아트포럼이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과 광화문광장에서 '제20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미술축제를 목표로 하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기성작가들에게는 일반 대중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각예술인들에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작가공모전 또한 미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



는 2030 청년작가들과 작가 지망생들에게 세종미술관에서의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지역 활동의 동기를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시에 그치는 공모전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25 올해의 작가에는 공주사범대 안해경(한국화) 교수와 이민구 한국화가가 선정되어 수상 기념전과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색채디자인교과서 개정판 출간 문은배(82응미)

문은배 동문이 신간 '색채디자인교과서'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50여 년간 무분별하게 반복되어 온 단편적 차용과 인용을 바로잡고, 색채 디자인 교육과 실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본(定本)'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책은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유니버설 색채 디자인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설명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문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및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제일기획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일했으며, 1995년 (재)한국색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1997년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00년부터 한국색채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문은배색채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며 색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와 홍익대학교 색채전공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젝트 '스윙 스페이스' 진행 이광서(94서양)

조원생활 운영사 아이부키의 대표 이광서 동문이 모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한 동문 및 작가들에게 '스윙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는 예술가들이 공간을 옮겨 다니며 작업한다는 뜻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유휴 공간을 예술가에게 단기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동문이 오랫동안 이어온 공간 실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그동안 서울 부암동 '시소' 건물에서 공실 기간을 활용해,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개인전을 유치하는가 하면, '장안생활'에서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의 출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소



규모 실험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리고 이번엔 조원 생활에서 '아이부키 스윙 스페이스-조원생활'을 진행했다. 김동문은 "비싼 갤러리 대관료와 치열한 경쟁의 공공 지원 기금 때문에 젊은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전시 기회가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밝히며 유휴 공간의 문화적 가치를 탐색해온 이동문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후 10년 넘게 미술학원과 출판사, 연구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휴고스갤러리 개관 원경희(96동양)

원경희 동문이 지난 7월 25일 청주시 휴암동 휴고스커피 1층에 휴고스갤러리를 개관했다. 이날 갤러리 개관전으로는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인호 동문의 초청전과 '한국의 아름다운 고지도'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소장전이 오는 9월 25일까지 진행된다. 휴고스커피 대표인 원동문은 "대학 입시미술을 디자인 위주로 지도하면서 서양-동양화 등 회화 쪽 예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다. 청주지역의 작가들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갤러리 개관 계기를 밝혔다. 이어 "그



림에 인생을 거는 작가들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왔다가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휴고스커피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커피 무료 시음, 밴드 버스킹, 재즈 공연, 커피인문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주기적으로 인문, 과학, 미술 등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복합문화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창열 회고전 김창열(48회화/192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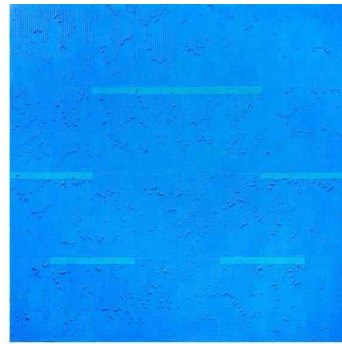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서울관에서 김창열 동문의 작고 이후 첫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문이 초현실주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상형시 'Il pleut(비가 온다)'를 물방울 회화로 번역한 동명 작품(1973)이 국내외 최초로 공개된다. 한편 김동문은 성북회화연구소에서 미술을 배웠으며 모교 회화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1950년대 한국 앵포르멜 미술을 주도 하였고 1965년



부터 4년간 미국에 체류하며 새로운 추상 미술 실험을 전개했다. 1969년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여 2021년 타계하기까지 50여 년 동안 물방울 회화에 몰두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확립했다. 또한 1980년 중반부터 물방울에 천자문을 결합한 '회귀' 작품을 통해 그만의 독보적인 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프랑스 문화 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 및 오피시에 등을 수훈했으며, 프랑스 쥘 드 폼 개인전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다수의 전시를 열었다.

HALO: Divine Radiance 김형대(56회화)

김형대 동문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서울 소공로 금산갤러리에서 개인전 'HALO: Divine Radiance'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동문은 대표 연작 'HALO'와 더불어 신작 20여 점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HALO' 시리즈는 김동문이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온 대표작으로, 캔버스 위에 수십 번의 붓질과 물감의 중첩을 통해 제3의 영롱한 빛을 발현한다. 김동문은 "빛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곧 수행"이라 말했다. 화면 위 수십 번의 덧칠과



고독한 사유는 단순한 형식 실험을 넘어, 한 인간이 걸어온 삶의 연대기이자 영적 신념의 기록으로 읽힌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를 역임했다.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202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열두 개의 질문 안규철(73조소)

안규철 동문의 개인전 '열두 개의 질문'이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4년 전 오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업 작가로서의 여정의 시작을 알린 이후 안동문의 예술적 궤적을 돌아보는 자리이다. 전시는 그의 앞선 두 전시 '안규철의 질문들-지평선이 없는 풍경', '12명의 안규철'에서 선보인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최근 작업 세계를 집약해 소개한다. 이외에도 1990년대에 제작된 퍼포먼스 사진 작업과 집을 주제로 제작된 조각 연작 등 다양한 작품들이 함께 소개된다. 한편



마치고 1995년 졸업한 후 귀국해, 199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런 날 송인옥(82회화)

송인옥 동문의 초대전 '이런 날'이 지난 9월 3일부터 14일까지 떼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1980년대에 송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추상표현주의풍의 짙은 농도의 색과 신체 제스처의 흔적이 펼쳐지는 표현적 화면을 큰 캔버스에 생산해 냈다. 점차 그는 높은 색면 위에 구체적 형상들을 등장하는 화면을 구성했다. 2005년 개인전에서 그는 구상적 요소나 짙은 색과 두껍고 거친 붓자국을 화면에서 제외하고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한 얼룩 같은 단위의 붓자국이 잔잔하게 화면에서 반복되는 화면을 꾸린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조교수 정신영은 "과거의 무게감 넘치는 화풍에서 벗어나 2005년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맑고 밝은 작가의 방식은 전통적으로 숭고하고 위대해야 하는 대문자의 회화에 대한 책무를 한 칸에 내려놓고, 보다 현실적인 삶의 일부로서의 회화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해 본다."고 했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송동문은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는 예원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TTE ART
INOKSONG INVITATIONAL EXHIBITION

송인옥 초대전
이런 날

2025.9.3 — 9.14

TTE ART GALLERY
서울 종로구 경교장길 35 상가동 3155-6호
tteartgallery.com

Opening Reception
2025.9.6 16:00-18:00

후원광고

BREATH 문혜정(74회화)

문혜정 동문의 개인전 'BREATH'가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스페이스 소포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문동문의 신작과 독일 유학시절 회화 작품들이 선보이며, 힘 있는 선과 거침없는 유화물감의 터치, 작품을 관통하는 생명력 넘치는 기운을 보여준다. 주로 대형 회화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작들은 꽃과 나무, 풍경과 자연을 주로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곧고 뚜렷한 문동문의 고집과 성찰이 담겨 있다. 한



독일 kodak 사진공모전, 독일 IG Metal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안말환 기획초대전 안말환(76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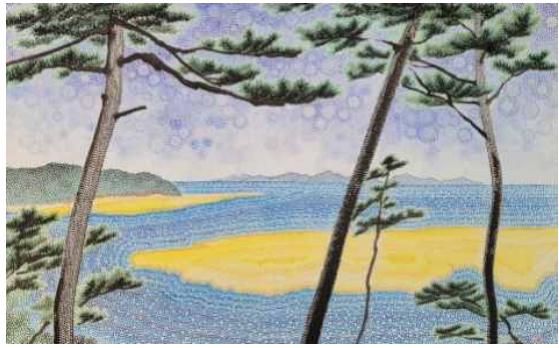
안말환 동문의 개인전 '안말환 기획초대전'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안동문이 오랜 시간 탐구해 온 휴식과 치유, 회복의 주제를 담아낸 회화 작품 40여 점이 선보여졌다. 그는 "불안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신선한 숲,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당신의 호흡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안동문



은 경기대학교 교육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독일 등 각지에서 47회의 개인전 및 초대전에 참여하였고 국내외 아트페어와 단체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등의 대회 심사를 다수 맡았으며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의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인천 섬 기행2 박재만(83동양)

박재만 동문이 '인천 섬 기행 2'를 열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서해5도를 제외한 인천의 섬을 기행하며 제작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박동문은 덕적도의 서포리해수욕장, 소나무숲, 능동의 자갈해변, 대이작도의 풀등, 오형제 바위, 승봉도의 남대문바위, 촛대, 부채바위, 자원도의 장굴해변, 목섬, 장봉도의 해식동굴, 편암 등 각 섬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들을 직접 걷고 두 발로 걸었다. 그가 경험한 섬들의 진경은 선묘법 대신 박동문만의 타점묘기법으로 표현됐다. 이경모 미술평론가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전통 미학을 실천하며, 점묘를 통해 수행적 태도를 보여주는 그의 작업은 오늘날의 시각예술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모교 동양화과와 춘천교육대학교 미술학과 강사를 역임했다.

전성규 초대전 전성규(81회화)

전성규 동문의 초대전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열린다. 전동문의 회화는 두 개의 서사 층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의 반복과 연속, 중첩이다. 이는 순환하는 에너지와 그 통로의 시각적 메타포로서 영혼과 신체가 교호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이며 '가장 미시적이면서 동시에 우주적인' 순환을 치열하게 추적하는 흔적이다. 두 번째는 섬세하고 조밀한 점선으로 형상화된 의복 형태인데 이는 몸, 문명과 역사, 즉 물질계의 메타포다. 의복은 신체요 실존이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허무와 절망'에서 구원과 희망으로의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한편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전동문은 이후 RMIT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8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JEON SEONG KYOO

Hidden Passage - Entanglement & Gaze 2025

전성규 초대전

2025.9.19 Fri - 10.1 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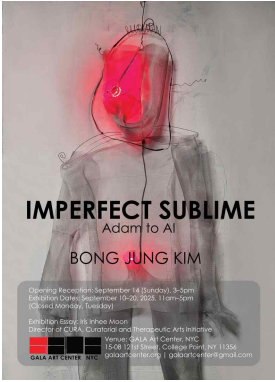
Opening 2025.9.19 5pm
Artist Talk 2025.9.23 6:30pm

내일 갤러리 내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내일신문) B2 갤러리 내일
02)391.5458
Open 11am - 6pm
*월요일 휴관

Imperfect Sublime: Adam to Ai 김봉중(84서양)

김봉중 동문의 개인전 'Imperfect Sublime: Adam to Ai'가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뉴욕에 위치한 Gala Art Center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에세이는 Curatorial and Therapeutic Arts Initiative 디렉터인 문인희 디렉터가 집필했으며 그는 김동문의 작업을 정신분석학, 생명윤리, 현대미술의 교차점에서 조망하고자했다. 그에 따르면 김동문은 연약하면서도 강하고 불완전한 몸을 탐구한다. 작품 속에 그는 몸 위에 기계적 파편을 접목하고, 인공적인 것을 회화 속에 유기적인 것 위에 쌓으며 그 과정을 통해 역사와 미래, Adam과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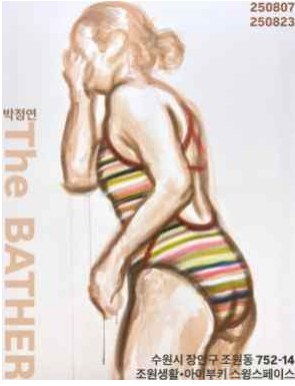


고 있다.

사이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김동문의 작품에서 몸은 불완전한 숭고함 (Imperfect Sublime) 속에서 Adam과 Ai를 잇는 다리이자, 생명의 기원과 미래적 재구성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199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을 기반으로 작업했다. 다수의 개인전과 그룹전에서 뚜렷한 주관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그는 2014년 첼시에서 첫 개인전을 여는 등 꾸준히 작업활동을 지속해 오

the BATHER 박정연(91서양)

박정연 동문의 개인전 'the BATHER'이 지난 8월 7일부터 23일까지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아이부키 스페이스에서 열렸다. 박동문은 캔버스에 이상화된 비율이나 매끈한 피부를 가진 여성이 아니라 거친 붓 터치로 몸의 양감의 쌓아올리고, 눌린 살, 등 위를 스치는 찰나의 빛과 그림자 등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지우고 뒷모습이나 신체의 특정 일부에 집중하여 인물을 익명화함으로써 '누군가'의 몸이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몸'에 주목하게



했다. 그의 작품에서 몸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순간을 살아내는 주체로 그려진다. 그의 시선은 전시 공간인 '아이부키 스윙스페이스'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생성했다. 다듬어지지 않은 공간의 분위기와 박동문이 표현하는 꾸밈없는 인체가 만나 절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지속 중이다.

김현정 개인전 김현정(94조소)

김현정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주미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사람이 보석이다'를 주제로 작업한 동명의 조각 시리즈 등 총 6점이 전시되었다. 관람객이 직접 착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색 왕관에는 점자로 새겨진 단어들이 준보석으로 장식되어 전시됐다. 김동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출발점으로, 인간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조각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모교 조소과에서 학·석사를 마



의 가치를 질문하는 작업들을 보여주는 개인전 'Blind in Art- One'을 가졌다.

추상 몸짓 임상빈(95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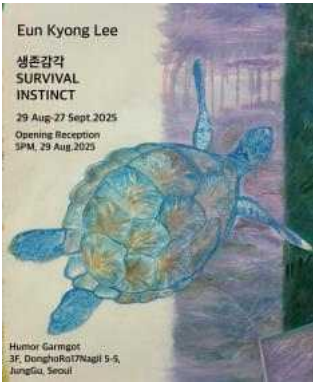
임상빈 동문의 개인전 '추상 몸짓:회화와 사진으로 바라본 인식의 풍경'이 지난 9월 4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나노갤러리에서 열린다. 임동문의 회화는 수많은 붓질이 층층이 쌓여 하나의 이미지로 응집되는 과정 속에서 독특한 리듬과 촉감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작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콜라주 방식으로 재배치하고 수채화처럼 경계를 흐리며 회화적인 느낌을 더한다. 임동문은 "회화와 사진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세상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하나의 몸짓"이라며 "때로는 언어보다



눈빛이나 손짓 같은 작은 행동이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처럼 전시되는 작품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인식의 풍경을 건네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예일대 대학원 회화와 판화 석사, 컬럼비아대 미술과 미술교육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수의 개인전과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그동안 공부하고 터득한 자신만의 예술적인 통찰을 다양한 분야

생존감각 이은경(02서양)

이은경 동문의 개인전 '생존감각'이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서울 중구 동호로에 위치한 유머감각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동문이 지난 2년간 준비해온 작품들이 선보여진다. 9m 규모의 대형 신작을 비롯해, 인간 존재에 내재한 근원적 감각과 삶의 긴장을 회화로 풀어낸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동문은 자아와 타자의 경계, 생존과 죽음의 간극 속에서 드러나는 불안과 떨림을 포착하며, 얼굴과 몸짓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권력과 긴장



을 탐구해왔다. 이를 통해 동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적 조건과 관계의 본질을 성찰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이다. 한편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판화과에서 수학한 이동문은 2001년 요한스 상-뵘페르 부르크 국립아카데미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2011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3회 이상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What Rests Between 강민정(04동양)

강민정 동문의 개인전 'What Rests Between'이 지난 8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다시그림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호주로 이주한 강동문의 첫 개인전으로, 낯선 환경 속에서 마주한 문화적 경계와 감정들을 그의 특유의 회화적 시선으로 펼쳐는 자리였다. 그는 현재의 작업들을 '기억 속에서 뒤영켜버린 얼굴들의 기록'이라고 말하며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그는 더이상 사람들의 눈빛과 표정을 읽을 수 없었고 손동작과 같은 제스처만이 점점 선명하게 기억되었음을 밝혔다. 강동문은 관계 속에서의 혼란스러운



까지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다.

감정을 인물의 얼굴로 표현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며 겪은 소통의 간극과 감정의 불투명함은 작품 속 얼굴들을 더욱 모호하고 흐릿하게 만들었다. 강동문은 작가노트에서 "나는 눈을 생략하고 대신 붓질을 남긴다. 눈은 마음의 창이지만, 이민자의 나에게 감정은 번역되지 않는다. 감정소통이 되지 않았고, 타인은 나에게 점점 낯설어져 갔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호주로 이주했으며 현재

